

유튜버 성장에 새로운 엔터 생태계 탄생

영상·콘텐츠·스타·플랫폼 4요소에서 막강한 파급 효과

유튜버로 대표되는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폭발적 관심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차그룹 계열 종합광고회사인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이런 내용의 '크리에이터의 성장'이 이끄는 트렌드 변화에 관한 상반기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25일 발표했다.

이노션 내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데이터 커맨드 센터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주요 블로그 및 카페, SNS 등을 통해 생산된 46만여건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크리에이터가 신조어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이제는 마케팅, 유통, 미디어 등 산업 전반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노션이 이런 크리에이터 열풍을 분석한 결과 ▲영상 ▲콘텐츠 ▲스타 ▲플랫폼 등 4가지 주요 요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상의 경우 방송(2만5609건), 구독자(8887건) 외에 촬영(15,454건), 편집(10,624건) 같은 관련 키워드의 등장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영상물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하

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방송 장비 판매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인용 방송장비 제품 매출이 2년 새 무려 540%나 늘어났으며,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이 주요 구매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노션측은 "보는 차이를 넘어 모든 이들이 동영상 DIY 전문가가 되는 보여주는 방송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의 경우, 음악 그 중에서도 유명가수의 노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한 커버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유일, 천만 구독자를 넘어선 제이플라 등이 대표적이다. 오감을 자극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도 주목할만하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일부러 벌레에 물리는 콘텐츠를 올리거나 말 없이 원시 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보여주는 해외 콘텐츠까지 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동영상의 특성상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청자에게도 어필할 수 있도록 비언어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 아이디어가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타 관련 키워드의 가장 큰 특징은 크리에이

터가 TV로, 연예인은 크리에이터로 변신해 웹으로 각각 진입하는 '영역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 유튜버인 대도서관, 영국 남자 조수, 이사배 등이 지상파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반대로 그룹 GOD 출신의 박준형이 '와썹맨'을 통해 133만명에 달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한 유튜버로 변신한 경우다.

플랫폼은 절대 강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외에도 검색까지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검색+재생'의 통합 플랫폼으로써 향후에도 경쟁력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렇다 보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TV기능을 새롭게 선보이며 '쇼셜TV'라는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있다.

즉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들이 동영상 기능을 강화하거나 추가하면서 동영상 플랫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노션의 이수진 데이터커맨드팀장은 "소통을 통해 유명해지고 수익도 낼 수 있다는 점점으로 크리에이터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미와 정보, 취미 습득 등의 새로운 볼거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크리에이터 시장 자체를 빠른 속도로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



전북발레시어터가 오는 29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마법사와 함께하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공연을 올린다.

다양한 볼거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전북발레시어터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공연

공연장 상주단체인 전북발레시어터(대표 박진서)가 오는 29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마법사와 함께하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공연을 올린다.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은 회오리 바람에 날려 마법사의 나라에 떨어진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법사 오즈를 찾아 나서는 내용이다.

이들 마술쇼 등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발레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지역에 문화예술을 널리 알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고 지역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료는 전 좌석 1만원이다.

정읍시민과 단체는 50% 할인되며 입장권은 공연 당일 1시간 전 판매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발레시어터(☎063-253-535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제10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흥겨운 국악잔치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성료

판소리 인재 발굴 및 의미 있는 정신 선양을 위한 제10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장수 논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는 장수군과 (사)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의 주최로 명창부, 일반부, 논개부, 신인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초등논개부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220여명의 참가자가 열띤 경연을 펼쳤다. 또 김수연 명창을 비롯한 국악인들의 축하 국악공연이 펼쳐져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경연에서는 명창부 대상(국회의장상)에 김송(남원)씨가 수상했으며, 일반부 대상(문화재청장상)은 신해량(전남 고성), 논개부 대상(전라북도지사상)은 정이주(서울특별시),

신인부 대상(장수군수상)은 도영실(대전광역시), 고등부 대상(교육부장관상)은 최다영(경남 김해), 중등부 대상(전라북도교육감상)은 최예나(울산광역시), 초등부 대상(전라북도교육감상) 진해은(경기 양주), 초등논개부 대상(전라북도교육감상)은 윤에서(전북 남원시)가 영예를 안았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대회가 판소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소리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문화의 산실로 더욱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문체부,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8월 16일까지 신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화, 체육, 관광 등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7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웅)이 주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관광공사 ▲국립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문체부 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과 ▲한국푸드테크협회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가 후원한다.

문체부는 138개 기관의 문화, 예술, 영화, 도서관, 체육, 관광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요약정보 + 원데이터 링크정보) 약 7,800만 건을 수집해 문화데이터광장(www.culture.go.kr/data)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아이디어' 분야와 ▲'제품개발 및 창업'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문화포털에서 제공되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공공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거나 문화데이터와 교육, 유통, 교통 등 타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각종 아이디어 기획', 또는 '서비스 혁신 및 제품 개발(시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하면 된다.

개인, 팀(2인 이상), 기업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culture.go.kr/contest)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응모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문화데이터 활용 안내서(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서류 심사(1차)와 발표 심사(2차)를 통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총 4050만 원)과 함께 문체부 장관상, 주관 기관장 및 후원 기관장 상이 수여된다.

또한 대상작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서 주최하는 '법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통합 본선 진출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통합 본선에서는 선정된 10개 팀이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거쳐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부터 문화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1인 창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이라면, 사업 형식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7월 중,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kcisa.kr)을 통해 공모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기업에는 ▲해외진출 기업 간 연계망(네트워크) 형성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해외진출 사전준비 ▲홍보자료 제작 및 번역 등을 비롯해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